
2021년 제10호 방송심의보고서

2021. 3. 5. ~ 3. 11.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3. 5.	시청률	0.015

【총 평】

국민리포트는 우리 생활주변의 알차고 훈훈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의 매력인 훈훈함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주인공인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상인 "SNS 홍보가 뭐예요?", 청년들 "걱정 마세요!"는 정부 지원과 지자체의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 정책이 청년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을 전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와 디지털 격차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전해짐을 잘 보여주었다. '일본에 다시 한류 붐...한국 드라마 인기'는 다문화인을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취재의 다양성과 다각화,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신선한 시도였고, 생활 뉴스 아이템 개발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구성 및 내용】

- 상인 "SNS 홍보가 뭐예요?", 청년들 "걱정 마세요!"
서울 양천구는 청년디지털 서포터즈를 19명을 선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비대면 마케팅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청년들이 돕는 사례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소상공인들에게 매출 확대를 가져왔다.
- 전국 최대 묘목산지, 온라인 판매 나선다
전국 묘목시장의 70%를 공급한다는 충북 옥천군 유원면 묘목시장을 소개했다. 코로나 19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품 개발과 새로운 판로 개척으로 희망을 잃지 않고 있는 옥천군의 묘목산업 자구책을 소개하였다. 온라인으로 묘목 나무를 구입하는 과정, 상품권 구입을 통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었다.
- 일본에 다시 한류 붐...한국 드라마 인기
일본을 뒤흔든 인기 드라마 '겨울연가' 이후, '사랑의 불시착'으로 한류 드라마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사이타마현 사카도시를 소개하면서, 일본 내 한류 드라마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의 소식을 전해 흥미로웠다. 다문화인 관점에서 한류 붐 현상을 리얼하게 그려내려고 노력한 점 등은 새로운 변화였고 의미 있는 시도였다.
- '아픈 역사 흔적' 남산 예정자락...115년 만에 시민품으로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남산 예정자락이 115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일제강점기 땀 조선총동부 관사로 해방 후엔, 중앙정보부 6국이 있던 공간인 남산 예정자락이 쉼과 역사가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 남부지방 섬마을 썩 캐기 작업 한창
진도 팽목항의 썩 채취 현장을 찾아 썩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과 썩의 효능까지 다양하게 언급을 했다. 아직 봄이라고 하기에는 이른 시기에 썩 채취 현장을 통해 봄소식을 전해주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3. 6.	시청률	0.123

【총 평】/5

‘NOW 北’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놓인 북한이 관광산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배경과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 국제수준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대화의 물꼬를 관광산업으로 풀어야한다는 해법을 제시한 기획이 돋보였다. ‘단박톡’에서는 북한 청소년의 역사교육 실상이 공개돼 주목도를 높였다. 북한이 역사교육에서 위인들의 업적을 왜곡하고 북한 김일성 우상화 도구로 날조하는 내용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역사교육에 대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탈피해 열린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돼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구성 및 내용】

‘NOW 北’은 최근 북한 당국이 관광사업 재개에 시동을 건 속사정을 알아봤는데 ‘양덕온천’ 개장과 ‘금강산개발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그 성공 가능성을 다각도로 따져봤다는 데 의미가 있었다. 북한의 관광사업 재개를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재개와 상호협력의 가능성을 점검해봤는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백신 지원을 통해 경제 교류의 물꼬를 트는 방안 그리고 북한의 지역 특성에 맞춘 지원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단박톡’은 북한의 역사교과서에 드러난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우리와 확연하게 다른 사례를 알아봤는데 나름 흥미로운 대목이 있었고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비난하지 않고 이해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 점이 좋게 느껴졌다. 남과 북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가기 위해선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좁혀나가야 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올바른 방향 설정이었다. 특히, 세종대왕과 이순신장군 그리고 류관순 열사까지 세 인물에 대한 북한의 역사적 평가를 통해 우리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체제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기 쉬웠고 퀴즈형식으로 풀어나가 재미있었다.

북한 학교에서도 역사교과서를 활용한 역사교육이 이뤄진다. 과거에는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한글 창제의 주체는 집현전 학자들로 되어 있다. 강조하는 내용이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 북한 역사교육에 있어 왕이나 양반 같은 지배층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면이 존재한다. 역사조차 우상화 도구로 이용하고 필요하면 날조를 서슴지 않는 북한의 실상이 드러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배경이 언급됐다. 독일도 통일 전에 같은 문제를 겪었던 점을 이야기 하면서 이런 차이를 비난하고 평가 절하할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0. 3. 6.	시청률	0.039

【총 평】

충남 지역 민원으로 교통관련 소식을 전했다. 충남 천안시의 8차선 도로 내 횡단보도가 없어 불편함을 호소하는 내용과 충남 아산시의 화단으로 가로막힌 이상한 횡단보도에 관한 내용이었다. 각 취재물 모두 불편함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반응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키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안과 계획을 차례로 소개해 짧은 내용이었지만 기승전결의 구성이 잘 살아있었고 각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도 확연하게 비교되었다. 특히, '위험천만 번영로 8차선 도로 보행 육교 설치 안전 확보'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한 천안시의 노력이 우수 행정 사례로서 신뢰감을 주었다. 또, 육교는 횡단보도보다 더 안전한 시설물로 시선 방해물이라 하여 안전과 바꾸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했다.

【구성 및 내용】

■ 위험천만 번영로 8차선 도로 보행 육교 설치 안전 확보

충남 천안시의 육교 설치에 8차선 도로와 학생들의 통학길이라는 두 단어를 제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지도를 통해 8차선 인근의 건물 조감도를 공개하면서 횡단보도의 부재로 얼마나 시민들이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충분히 공감하게 만들었다. 또한, 구도심의 상권 이용 문제도 언급하면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충분히 강조가 되었다. 그러나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주 논리적으로 지적이 잘 되어 더욱 몰입을 유도했다.

본격적으로 육교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 횡단보도 대신 육교 설치로 노선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잘 되어 공감을 샀다. 아이들이 개학할 때까지 공사에 진척이 없었던 상황에 대한 배경도 자세히 밝히고 그에 대한 대안과 변경된 공사 계획과 주민 협의에 관한 부분도 최대한 진정성 있게 언급이 되어 깔끔하게 마무리 되었다.

■ 아산시의 가로막힌 횡단보도? '화단 옮기고 턱 낮추기로'

사람들이 건너는 횡단보도 앞에 턱이 높은 화단으로 가로막혀 충남 아산시 방축동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이었다. 화단이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차근차근 풀어내고 지자체의 입장도 상세히 전하면서 궁금증이 풀렸다. 도로교통법을 상세히 언급하면서 횡단보도 중복 설치 금지에 관한 내용과 주민 편의에 관한 부분을 비교해가면서 진행해 좀 더 흥미를 끌어올린 것 같다.

이 밖에 무신호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부분도 설명이 잘 되어 오해가 없었고 무엇보다 아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의지가 아주 돋보였다. 특히, 화단을 제거하기로 했다는 결론만 전하고 마무리를 했어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취재를 나가서 상황을 보고한 점이 돋보였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3. 7.	시청률	0.016

【총 평】

‘2.4 부동산대책 그 후 한달’은 정부가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지 한달 후의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2.4대책이 성공리에 안착하기 위한 과제로 공공주도 재건축에 대한 이점과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을 소개한 기획이 돋보였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소비자인 국민의 반응을 정책당국에 알려 피드백으로 활용하게 하는 한편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의 수용성을 제고했다. 2.4부동산 대책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시장의 긍정과 부정 반응을 분석한 뒤 정부의 대응과 과제, 후속대책 등을 알아보는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공공 주도가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자문한 뒤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의 이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한 점이 수용자 이해도와 만족도를 제고했다. 또, 진행자가 조합과 사업현장을 찾아 케이스 스터디로 시장 조사를 한 점이 소구력을 높였다. 발표된 주택공급 계획량을 실제 물량으로 연결시키고, 시장의 신뢰가 쌓여야 2.4대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정책적 제언이 공감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정부가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한지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논란이 있는 부분을 다시 돌아보고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을 주문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실수요자 그리고 부동산 업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하려고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2.4 부동산 대책, 그 후 한 달’은 지난 2월 4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량 공급대책과 그 이후 한 달간의 상황을 알아보았다. 2.4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시장 반응, 집값 안정화 가능성, 공공이 주도하는 효과, 현금청산 조항의 재산권 침해 논란 등을 다뤄주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을 추진했던 8.4 부동산대책이 실패한 이유를 인센티브가 부족한 데서 찾고 2.4 대책이 추진해나가야 할 지향점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은 공공이 직접 의사결정을 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용이하다. 더불어 기존의 복잡한 사업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이점도 있다. 그리고 재건축부담금이나 의무거주 제한도 없어졌다. 대표적인 역세권을 꼽히는 독바위역 주변 재개발 지역을 찾아서 교통여건을 중심으로 취재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야 소위 ‘패닉 바잉’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현장에서 전하는 메시지라 더 힘이 있었다.

2.4 대책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잠재울 것인지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3. 7.	시청률	0.154

【총 평】

아주 작은 마을 경남 하동군 고하리에 여섯 명의 청년이 나타나 활기찬 동네를 만들고, 청년 귀촌의 새로운 미래를 담아낸 '시골 마을에 나타난 수상한 청년들'을 방송했다. 귀촌 1년이 되지 않은 수상한 여섯 청년들은 돈으로 만났다가보다 살기 위해 모인 남자들로서 "같이 가치관"을 동네에 전파했다.

정부 정책과 지자체 정책이 귀촌 프로젝트로 어떤 효과를 얻는지를 간접적으로 잘 드러냈고, 귀촌 체험으로 청년들과 예비 귀촌자에게 귀촌의 현실감과 희망을 갖게 했다. 또, 소도시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등 시청자와 청년들에게 하나의 대안을 알려준 의미 있는 방송이었다.

【구성 및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우연히 알음알음으로 만난 6인 6색 청년들은 처음 고하리 마을사람들 눈에 수상한 청년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정체는 다름 아닌 수제 햄버거집 운영자이자 건강한 음식을 파는 청년 벤처가들이다. 마곡 창고를 개조해서 각자의 달란트를 십분 발휘한 여섯 청년들은 단순히 수제 햄버거만 파는 것이 아니다.

햄버거 가게 뒤편이 자리한 카페와 게스트 하우스를 소개했는데, 카페는 아주 이색적인 분위기로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게 만들었고 게스트 하우스는 구옥을 잘 활용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어 좀 더 특별한 느낌이 들었다.

또, 귀촌이라는 것은 도시의 생활과는 달리 무엇이든 자신의 속도에 맞출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와닿았다. 귀촌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고민을 아주 진정성 있게 대변해준 부분도 공감을 샀고, 공동체와 교류를 나누고 있는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돋보였다.

청년들이 자신의 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느껴졌다. 특히 새벽에 일어나 마을 청소를 한다든지, 텅 빈 시골에 핫 플레이스를 조성하는 자체가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나 반가운 일인지 강조되었다. 윈-윈 전략으로 마을을 청소하고 마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인공들의 진정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동네를 활기차게 만드는 것은 물론 SNS를 통해 전국적인 명소가 됐다고 한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들을 복덩이로 부른다. 주인공들의 마을 적응기와 귀촌 1년의 이야기, 이들의 희망을 잘 담아냈고 훈훈함을 자아냈다. 특히, 주인공 중 한 명이 군청을 방문해서 청년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를 상담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내용임을 언급해 하고 있는 일의 진가가 드러났다.

마무리 부분은 청년들의 휴일 풍경을 담아내며 공동체 생활의 묘미를 강조했다. 한 부부는 개를 데리고 산책을 했고, 다른 청년들은 바이크를 타면서 귀촌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귀촌이 주는 공동체 생활의 특별함과 소소한 행복이 더 와닿았다.